

Martin Luther King Junior's "I have a dream" speech



I am happy to join with you today in what will go down as the greatest demonstration for freedom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Let us not allow in the valley of despair,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And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This is our hope. This is the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 jangling discords of our nation into a beautiful symphony of brotherhood.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And this will be the day, this will be the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will be able to sing with new meaning.

Thank you very much.

## 마틴루터킹 주니어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훌륭한 시위가 있던 날로 기록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절망의 계곡에서 몸부림치지 말자고,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의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맞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날이 되는 꿈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네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애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이 날이 모든 하느님의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President Zelensky addressed the US Congress



### **Great People of Great Ukraine!**

A year ago, on this day, from this very place, at about seven in the morning, I addressed you with a short statement. That Russia started a full-scale war against us. That is how February 24, 2022 began. The longest day of our lives. The hardest day of our modern history. We woke up early and haven't fallen asleep since. Some people were afraid, some were shocked, some did not know what to say, but everyone felt what to do. We did not raise the white flag, and began to defend the blue and yellow. We were not afraid, we did not break down, we did not surrender.

Our faith has grown stronger. We endured the first day. We didn't know what would happen tomorrow, but we realized for sure: every tomorrow is worth fighting for! And we fought. And we endured the second day. And then - the third. Three days, we were predicted to last. They threatened that in 72 hours we would not exist. But we survived the fourth day. And then the fifth. And today we have been standing for exactly one year.

I am grateful to all those who make our resistance possible. Thanks to you, Ukraine stands. And we endured a furious month and a furious beginning of the war. I thank all of our partners, allies and friends who have stood side by side with us throughout the year.

It was a year of resilience. A year of care. A year of bravery. A year of pain. A year of hope. A year of endurance. A year of unity.

The year of invincibility. The furious year of invincibility.

Its main result is that we endured. We were not defeated. And we will do everything to gain victory this year! **Glory to Ukraine!** Thank you all very much.

## 젤렌스키 대통령 US 의회 연설



### **위대한 우크라이나 국민!**

일 년 전 오늘, 한 아침 7시 쯤, 바로 이 자리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2022년 2월 24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긴 하루이자 현대 역사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된 것입니다. 아침 일찍 깨어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충격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말문이 막혔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할 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백기를 드는 대신 우크라이나 국기를 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으며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째 날을 견뎌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몰랐지만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모든 내일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3일도 못 가서 정복될 거라고들 했습니다. 72시간 후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넷째 날도 살아남았으며 다섯째 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정확하게 일년 동안 이렇게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저항을 가능하게 해 준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는 굳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격렬한 날들과 맹렬한 전쟁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년 동안 우리의 곁에서 함께 있어준 우리의 모든 동지들, 동맹국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지난 일 년은 회복의 해였습니다. 배려의 해이기도 합니다. 용기의 해였습니다. 고통의 일 년이자 희망의 일 년이었으며 인내의 해였습니다. 통일의 해였습니다. 불패의 일년, 격렬한 불패의 일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견뎌내었습니다. 정복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 해 승리를 거두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합니다.

**Greta Tunberg :**  
**YOUTH4CLIMATE Speech in Milan, Italy 2021.**



"Climate change is not only a threat, it is above all an opportunity to create a healthier, greener and cleaner planet which will benefit all of us." [ironically quoting politicians]

"There is no planet B" there is no planet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uild back better" blah blah blah.

"Green economy" blah blah blah. "Net zero by 2050" blah blah blah.

"Climate neutral" blah blah blah.

This is all we hear from our so-called leaders: words - words that sound great, but so far have led to NO action.

Our hopes and dreams drown in their empty words and promises.

Of course we need constructive dialogue, but they've now had 30 years of blah bah blah and where has that led us?

Our leaders' intentional lack of action is a betrayal towards all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ey invite cherry-picked young people to meetings like this to pretend that they are listening to us.

But they are not - they are clearly not listening to us - and they never have - just look at the numbers - look at the statistics - the emissions are still rising - the science doesn't lie. We can no longer let the people in power decide what is politically possible or not.

We can no longer let the people in power decide what hope is.

Hope is not passive. Hope is not blah blah blah. Hope is telling the truth.

Hope is taking action. And hope always comes from the people.

And we the people - we want a safe future, we want real climate action and climate justice. The leaders like to say "we can do this". They obviously don't mean it, but we do - we can do this.

I'm absolutely convinced that we can. It starts with taking action, and it starts now. Thank you.

그레타 툰베리: YOUTH4CLIMATE 연설,  
이탈리아 밀란 2021



"기후 변화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더 건강하고 푸르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의 말을 인용했네요...]

"또 다른 행성은 없습니다. 또 다른 행성은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

"발전적 재건 어쩌구 저쩌구" "녹색 경제 어쩌구 저쩌구"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어쩌구 저쩌구" "기후 중립 어쩌구 저쩌구"

이 말들은 우리가 소위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입니다. - 대단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은 그들의 공허한 말과 약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건설적인 대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들이 지금까지 30년동안 어쩌고저쩌고 떠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도자들의 이러한 의도적인 실천 부족은 모든 현재,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들은 우리 말을 듣는 척하기 위해 선별된 젊은이들을 이런 모임에 초대합니다. 그들은 우리말을 듣지 않는게 분명합니다. 들은 적도 없구요. 숫자만 봐도 알겠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가스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안하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희망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어쩌구 저쩌구가 아닙니다. 희망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안전한 미래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후 실천과 기후 정의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행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